

“전남서 겨울 감성여행 즐기세요”

특량역 추억의 거리·함평 해수찜·영광 굴비거리 등
道, ‘볼거리·놀거리·먹거리 가득’ 12월 관광지 추천

전남도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득한 겨울 여행지’라는 주제로 보성 특
량역 추억의 거리, 함평 해수찜, 영광 법
성포 굴비거리를 12월 추천관광지로 선
정했다.

보성 특량역 추억의 거리는 1970-198
0년대 읍내 모습을 재현,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소중한 추억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 쌍화차가 있는
행운다방, 예전 교실 모습 그대로 간직
한 특량국민학교, 옛날 전자제품이 전시
된 은빛전파사 등을 둘러보며 진한 향수
(레트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중과 방송의 드라마 흥행작
‘웃소매 붉은 굿동’을 촬영했던 아름다
운 한국 정원 강감마을 영화정, 1935년 5
성급 호텔을 복원한 보성여관, 유명 영
화 명장면으로 꾸며진 월곡영화골 벽화
마을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함평 해수약찜은 오랜 시간 달군 1천3
00℃ 유황석과 약초를 해수(海水)가 든
탕에 넣고 데워지면 물로 찜질을 하는
방식이다. 온천과 약찜 효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해수찜은 신경통, 산후통,
관절염, 피부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
과가 있어 효도 여행 코스로도 인기가
다.

주변에 함평군립미술관과 양씨 파충
류, 곤충,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함평자

연생대공원, 계절마다 다양한 식물로 꾸
며진 함평 엑스포공원 등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많다.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는 간수 빠진 국
산 전일염으로 염장을 하고 해풍에 말린

영광굴비의 육질과 식감을 즐길 수 있
다. 굴비구이와 함께 보리굴비, 조기찌
개, 간장게장이 한상 가득 나오는 굴비
백반정식은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서해안 갯바람을 맞고 자란 모깃잎
으로 빚은 영광 모깃잎송편도 맛볼 수
있다.

먹거리와 함께 커다란 느티나무 127
그루가 있는 법성진성 숲쟁이공원, 한국
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백수해

안도로, 파키스탄 간다라 양식의 탑과
불상 유물이 전시된 백제불교 최초 도래
지, 111m의 영광 칠산타워 전망대 등 매
력적인 관광지가 많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눈이 많
이 온다는 대설이 지나고 겨울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익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먹거
리가 풍부한 전남에서 안전한 여행을 즐
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득한 겨울 여행지’를 주제로 보성 특량역 추억의 거리, 함평 해수찜,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12월 추천 관광지에 선정했다. 사진은 1970-1980년대 모습을 재현한 보성 특량역 추억의 거리 모습.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김치·농축산물·공예품 등 10개...21-22일 공급업체 접수

광주시가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대표 상품을 김
치를 포함해 총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11일 “최근 유통, 관광, 마케
팅 전문가 등이 참여한 답례품선정위원
회를 열어 ▲따라하고 싶은 손맛 광주김
치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지역특산물
인 진다리밥 ▲지역 생산 농축산 꾸러미
▲전국 재배 면적 3위인 우리밀 가공품

▲웰빙간식 김부각 ▲임차류 ▲된장간
장세트 ▲공예품 ▲쌀 ▲광주상생카드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다
양한 품목으로 구성해 기부자의 선택 폭
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
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자치행정과 고
향사랑기부TF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업체 중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공급, 배송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올해안에 고향사랑e음(고향사
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10개 품목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특색이 담겨진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
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郷심을 통
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향에 대
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다.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
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
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을 받을 수 있다. /박선강기자

市,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내년 1월부터 과태료

광주시는 11일 “2023년부터 상습적이
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
역의 경우 상가 앞 상품 진열 등으로 보

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 신
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5개 자치구와 함

께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연
말까지 안내장 배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벌인 후 자
진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함동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
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은 계고장을 1-3회(1차/15일, 2
차/15일, 3차/10일) 발부해 자진 정비하
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선강기자

월드컵 현장서 전남관광 세계에 알린다

道, 18일까지 카타르서 이벤트·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도하 중심부 코니치
(Al Corniche) 해변에서 대한민국 지
자체를 대표해 오는 18일까지 전남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관광 홍보 이벤트는 전남도와 문
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등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것으
로 예상되는 약 200만명의 관광객과 중
동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홍보관
에서 전남 관광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
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전남 방문의 해 및 전남
웰니스 관광자원 홍보 영상 등을 옥외 송
출하고 전남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
즐거거리와 K-드라마 전남 촬영지 등이
담긴 전남 관광 홍보 책자를 배부한다.
중동 MZ세대와 전 세계 월드컵 팬층을
대상으로 전남 홍보관 누리소통망(SN
S) 인종샷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남을 알린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전 세계 인구의 25
%를 차지하는 19억 무슬림 중동 관광
시장 신규 개척을 위해 한국 지자체 대
표로 중동 관광 로드쇼에서 관광설명회
를 개최했다. 중동 관광객 전남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여행사 등과
의 협약(MOU)도 했다.

또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등 국가를 대
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동 미
디어·인플루언서 초청 팬투어를 진행하
는 등 전남 관광 인지도 제고를 통한 중
동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중동 관
객이 선호하는 전남의 풍부한 청정·
힐링 천연자원과 문화자원 등 고품격 관
광자원을 바탕으로 무슬림 친화 관광지
수용 태세를 구축해 중동 관광객이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중국과 인적·물적 교류 협력 확대 기대”

姜시장, 주한 중국대사 접견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중 수교 30주
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58)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중국과의 교류 협
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싱하이밍 대사
는 전국에 설치된 24개의 공자학원 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광주를 찾았
고 처음으로 광주시청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중국 총영사관
이 자리 잡아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중국은 발전 가능성
이 큰 시장인 만큼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투자와 무역이 다시 늘
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인적·물적 교류를 위
해서는 항공 등 교통 여건 개선이 전제
돼야 하는데 현재 무안공항에 국제선 취
항이 많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활발한 투자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수교 30
년이 됐지만 우리는 수천년 전부터 이웃
으로 지내며 문화·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류가
내년 봄이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호남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문화·경제적으
로 활발히 교류하며 윈윈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 시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181t 판매

광주시는 11일 “2022 빛고을 사랑나
눔 김장대전에서 181t, 10억9천만원 상
당의 김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김
치타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
천22가족이 김장철을 맞아 사전 주문
한 절임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현장에
서 김치를 담갔으며 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나눔 행사를 전개했
다.

특히 올해는 김장 판매 물량 181t 중 6

2t을 택배로 판매했다. 경기도(1천94
건), 경상(287건), 전라(226건), 충청(1
06건), 제주(79건) 등 3천700여건이 타
지역 주문 물량이다.

김장대전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공동 개
발한 조리법으로 광주 김치의 맛과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배추, 신안 천일염, 함
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 등 남도 청
정지역의 원부재료를 공동 구매해 시중
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
다. /박선강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CMYK